

예수님의 기쁨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10:21]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지난 주에 우리는 ‘슬픔의 사람’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경험하신 기쁨,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하리라고 말씀하신 기쁨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슬픔과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고 기쁨에 찬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기쁨을 가져 왔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던 날 한 천사가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그 주변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0-11]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오늘날도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파묻혀서 암흑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속죄받고 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처녀 마리아에게도 처녀 임신의 기적은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특권으로 기뻐하라고 하였고, 마리아 역시 그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6-48]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신체적으로 잉태된 것처럼,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잉태되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함께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리아와 같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복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 왕국에 있는 ‘생명 책’에 기록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이 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19-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앞서서 인용한 누가복음 10:21 절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진리를 깨닫게 된 일로서 주님의 가슴 속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서 그 기쁨을 제자들 앞에서 기도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21]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아기들과 같은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실, 즉 진리 계시를 받게 된 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전도자들도 사람들이 순전하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전도자의 기쁨을 여러 비유 말씀을 통하여도 언급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몇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갖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서둘러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 그분의 가르침을 40 여일간 받게 된 제자들은 큰 기쁨과 신념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서 기독교가 1 세기에 급속도로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8]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더라.

주님께서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는 보상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에 구약 시대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대언자들이 하늘 왕국에 와서 큰 상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언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23]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대로 흘러가면서 살면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늘의 상을 기대하므로 마음 속에 큰 기쁨을 지니고 기쁨의 신앙 생활을 하시기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4]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www.douglaschoministry.net